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전남 컵대회 선두

울산 1-0 제압… 광주도 상주 꺾고 첫승

광주 FC가 컵대회 첫 승전보를 올리며 정규리그 포함 3연승을 내달렸다. 전남 드래곤즈는 울산 현대를 제압하고 컵대회 B조 선두자리에 올랐다.

광주 FC가 5일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린 러시앤캐시컵 2011 B조 4라운드 상주 상무와의 경기에서 후반 종료를 앞두고 터진 김성민의 결승골에 힘입어 3-2로 컵대회 첫 승리를 장식했다. 서울과 대전을 잇달아 격파하고 정규리그 2연승으로 기세가 오른 광주는 컵대회 첫 승리로 3연승을 찍었다.

광주 최만희 감독은 그동안 경기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던 선수들을 대거 투입하면서 4번째 컵대회 경기에 나섰다. 두 명의 김성민은 나란히 골을 터트리며 최만희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다.

전반 12분 호남대 출신의 '큰' 김성민이 김홍일과 호흡을 맞춰 선제골을 터트렸다. 1-1로 맞선 후반 13분 유동민이 골을 터트렸지만 상주가 3분만에 K리그 득점 1위 김정우를 앞세워 2-2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그러나 후반 추가시간 '작은' 김성민이 영웅이 됐다. 김성민은 오른발 슛으로 상주의 골문을 가르면서 3-2의 승리를 알렸다.

광주는 승점 3점을 챙기며 4연패의 상주를 누르고 B조 탈꼴찌에 성공했다.

전남은 4일 광양전용구장에서 열린 울산과의 경기에서 후반 6분 터진 장신 수비수 코니의 선제골을 지키면서 1-0으로 승리를 거뒀다. 전남은 무패행진(3승1무)을 이어가면서 승점 10점으로 컵대회 첫 패배를 기록한 울산(3승1패·승점9)을 1위 자리에서 끌어내렸다.

컵대회에서 나란히 승점 3점을 챙긴 광주와 전남은 정규리그 9라운드 경기를 위해 원정길에 오른다. 광주 FC는 8일 오후 3시 거창스포츠파크를 찾아 경남과 승리를 다투게 된다. 수원월드컵경기장을 찾는 전남은 7일 오후 6시 수원과 대결을 벌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안데르손의 골 멘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안데르손(가운데)이 5일 잉글랜드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2010-2011 UEFA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2차전 샬케04와의 경기에서 골을 넣고 있다. /연합뉴스

아깝다! 서재응 호투

KIA 방망이 침묵… 넥센에 0-3 영봉패

KIA 타이거즈가 5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넥센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0-3으로 영봉패를 당했다.

서재응의 호투가 아쉬운 경기였다.

임시 불펜에서 선발로 돌아온 서재응은 1회초 1사에서 장기영에게 우월솔로포를 허용했지만 6회까지 2개의 피안타로 넥센 타선을 막으며 선전했다. 하지만 KIA는 초반 기선제압의 기회를 놓치면서 어려운 승부를 펼쳤다.

KIA는 1회초 박기남의 안타와 도루로 1사 2루의 기회를 잡았지만 3번 이범호와 4번 김상현이 파울플라이와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선제 공격에 실패했다.

4회 다시 한번 KIA에게 기회가 왔다.

이범호가 선두타자 안타로 출루한 뒤 김상현이 볼넷을 골라내면서 무사 1·2루가 됐다. 안치홍의 번트로 1사 2·3루까지 만드는데 성공했지만 다음 타자 김상훈이 우익수 플라이로 물러났다. 짧은 타구에 3루주자는 홈을 밟지 못했다. 신종길의 볼넷으로 만루까지 채웠지만 김주형이 풀카운트 승부끝에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서면서 득점없이 4회 공격이 마무리 됐다.

결국 7회가 승부의 분수령이 되고 말았다.

서재응이 첫타자 강병식을 중전안타로 내보냈다. 대주자로 들어간 김일경이 도루에 성공하면서 무사 2루, 송지만의 좌전 안타가 이어졌지만 홈에 들어오던 김일경이 아웃되면서 실점 위기를 넘겼다.

곧바로 KIA는 손영민으로 투수를 교체했지만 아쉬운 결과가 나왔다. 손영민이 풀카운트 승부끝에 김민성을 볼넷으로 출루시키면서 2사 1·2루가 됐다. 이어 김민우의 타구가 좌중간에 떨어지면서 2타점 2루타가 되고 말았다.

8·9회 두 차례의 반격에서도 KIA의 방망이가 터지지 않으면서 경기는 0-3으로 끝났다. 넥센과의 대결에서 1승2패를 기록한 KIA는 6위로 내려앉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맨유, 샬케 대파… 바르샤와 '빅뱅'

UEFA 챔스리그 결승 진출 … 29일 단판승부

'우승 키맨' 박지성 챌시전 대비 의미있는 결장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2년 만에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라 FC바르셀로나(스페인)와 우승을 다투게 됐다.

맨유는 5일(이하 한국시간) 잉글랜드 맨체스터의 홈 구장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2010-2011 UEFA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2차전 샬케04(독일)와의 홈 경기에서 안토니오 발렌시아와 대런 깁슨, 안데르손(2골)의 연속골에 힘입어 4-1로 크게 이겼다.

원정 1차전에서 2-0으로 이겼던 맨유는 1, 2차전 합계 6-1로 결승에 안착했다. 맨유는 이로써 전날 결승 진출을 확정한 바르셀로나와 오는 29일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우승컵을 다툰다.

바르셀로나와 맨유는 2008-2009시즌 결승에서 만나 바르셀로나가 2-0으로 이겨 우승했다. 맨유는 2년 전 패배 설욕과 함께 2007-2008시즌 우승 이후 3년 만에 정상 탈환에 도전한다.

1차전 원정 경기에서 두 골 차로 이겨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맨유는 웨인 루니, 파트리스 에브라, 네마냐 비디치, 대런 플레처, 박지성 등 주전 선수들을 선발로 내보내지 않았다. 특히 루니와 박지성은 출전 선수 명단에서도 제외됐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승점 3점 차로 쫓아온 첼시와의 주말 맞대결을 대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선제골은 맨유의 몫이었다. 전반 26분 발렌시아가 깁슨의 패스를 이어받아 샬케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와 맞서는 기회를 잡았고 침착하게 이를 밀어 넣어 1-0을 만들었다. 선제골을 내준 샬케04 수비진이 허둥대는 사이 맨유는 한 골을 더 넣으며 사실상 결승 진출을 확정 지었다. 후반 31분 깁슨이 발렌시아가 밀어준 공을 오른발 슛으로 연결해 2-0을 만들었다.

샬케04는 4분 뒤에 만회 골을 뽑으며 실낱같은 희망을 이어가는 듯했다. 샬케의 일본인 수비수 우치다 아쓰토가 오른쪽 측면을 파고들다 올린 크로스가 페널티 지역 안에서 혼전을 벌이다 흘러나왔고 이 공을 호세 후라도가 중거리슛을 마무리, 2-1로 따라붙었다. 그러나 맨유의 안데르손은 후반 27분 나니의 패스를 이어받아 쐐기골을 터뜨렸다. 안데르손은 4분 뒤에 이번엔 디미타르 베르바토프의 패스를 이어받아 추가 골까지 넣으며 환호했다. /연합뉴스

역대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역대 우승팀(1990~1991시즌 이후 기준)

시즌	우승	준우승
1990~1991	크르베나(유고)	마르세유(프랑스)
1991~1992	FC바르셀로나(스페인)	삼프도리아(이탈리아)
1992~1993	마르세유(프랑스)	AC밀란(이탈리아)
1993~1994	AC밀란(이탈리아)	FC바르셀로나(스페인)
1994~1995	아약스(네덜란드)	AC밀란(이탈리아)
1995~1996	유벤투스(이탈리아)	아약스(네덜란드)
1996~1997	도르트문트(독일)	유벤투스(이탈리아)
1997~1998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유벤투스(이탈리아)
1998~1999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	바이에른 뮌헨(독일)
1999~2000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발렌시아(스페인)
2000~2001	바이에른 뮌헨(독일)	발렌시아(스페인)
2001~2002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레버쿠젠(독일)
2002~2003	AC밀란(이탈리아)	유벤투스(이탈리아)
2003~2004	FC포르투(포르투갈)	AS모나코(프랑스)
2004~2005	리버풀(잉글랜드)	AC밀란(이탈리아)
2005~2006	FC바르셀로나(스페인)	아스널(잉글랜드)
2006~2007	AC밀란(이탈리아)	리버풀(잉글랜드)
2007~2008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	첼시(잉글랜드)
2008~2009	FC바르셀로나(스페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
2009~2010	인터밀란(이탈리아)	바이에른 뮌헨(독일)

자료/ 사커오브사커 연합뉴스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프리모남녀가발
가발 초슬림!!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시술후
스킬과 망이 초극대화하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며 이질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검색
가격파괴 50~만원
최상품을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혀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화상 두피함몰등 가발의 모든것 해결함
타사 제품도 신기술로 보완시술 가능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 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상가 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 장 이 수 채 011-607-5330
대산프리모가발

완벽한 방수성 + 리모델링 효과로
건물의 수명과 가치가 높아집니다.
하이브리드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無중금속 無독성 내구성 내마모성 내오염성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칼라단열외벽방수공법
- 특허 제0544371호 -
이파엘지 하이브리드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공순서
시공전
바탕정리및 고압수크린징
하이브리드 외벽프라이머
하이브리드 외벽마감1차
크랙보수및 취약부위보강
하이브리드 외벽마감2차
시공후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 WWW.IPALG.COM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